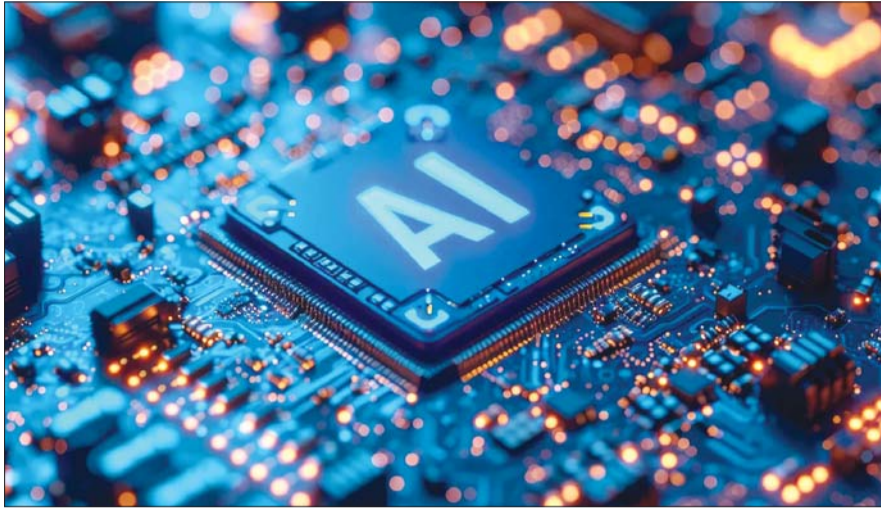


# 外人, '반도체株'로 복귀... 트럼프 수혜 '방산·조선'도 쑥쑥

外人, SK하이닉스 9612억 사들여  
새해 들어 7거래일간 17.02% ↑

삼성전자, 2374억... 순매수세 반전  
악재 선반영 평가로 상승여력 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트럼프 취임 앞두고 성장 가능성



반도체 칩셋의 모습.

/PIXABAY 무료 이미지

외국인 투자자가 새해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집하며 지난 8월부터 지속됐던 코스피 순매도세를 순매수 전환시켰다. 이외에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방산, 조선 관련 종목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9612억 원, 2374억원씩 담았다. 외국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SK하이닉스는 새해 들어 7거래일 동안 17.02% 상승하며 '20만닉스'에 복귀했다. SK하이닉스가 증가 기준 20만원을 넘긴 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외국인 보

유율도 55.37%를 기록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반등의 주인공은 반도체로 2일부터

7일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0.8%포인트, 0.7%포인트의 지수 상승 기여도를 기록했다"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기대감이 높고, 12월 반도체 수출이 11월보다 나아진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는 2일부터 7일까지 3.9% 급등했다.

외국인들은 새해 들어 코스피에서 1조4344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

록하며 22조4617억원을 팔아치웠으나 이달 들어 순매수 전환된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으로, 6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반전되면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 8만200원에서 연말 증가 5만3700원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3.95%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외국인 순매도 중심에 있던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은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5만전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밸류에이션 저점에 머물러 있고, 악재들을 선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오르는 모습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43% 상승하며 증가 5만7300원에 마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모든 악재를 선

반영한 주가로 판단돼 하락 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향후 상승 여력은 커질 전망이다"이라며 "1분기부터 범용 메모리 재고가 감소세에 진입했고, 2분기부터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트럼프 수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117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조선주인 한화오션도 1062억원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산업 성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에는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각각 1172억원, 521억원씩 사들이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7일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단기 반등에 성공한 반도체를 대신해 바이오, 조선, 방산 등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빠르게 상승했다"며 "시장에 대한 생각을 낙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일부 차별을 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순자산 1兆 돌파

한해동안 순자산 총액 247.1% 늘어  
주식형 ETF만으로 이룬 성과 '주목'  
액티브 ETF 운용 특화 하우스로 꼽혀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소형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한해동안 순자산을 주식형만으로 약 250% 늘리며 1조원대를 넘겨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은 173조56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말 121조657억원보다 43.36% 증가한 규모다.

ETF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자본이 몰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각자의 상품 수익률을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올해 '낭중지추(囊中之錘)'의 지력을 보이며 업계의 주목 받고 있다.

2008년 7월 투자자문사 형태로 출범한 타임폴리오는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액티브(Active)' ETF

를 운영하는 것에 특화된 하우스로 꼽힌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액티브 운용 전략은 시장에서 높은 순자산총액(AUM)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 7일 기준 'TIMEFOLIO 액티브 ETF13종의 순자산 합계는 1조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월 ETF를 처음 상장한 이후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국내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유일하다. 국내에서 액티브 ETF 상품을 주력으로 삼는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이 있다.

아울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2023년 말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247.1%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측은 "채권 및 금리형 ETF 없이 주식형 ETF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특히 업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보다 높은 증가율을 달성한 하나자산운용의 증가율은 248.0%인데, 하나자산운용의 주력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 등으로 주식은 운용자산현황에서 7% 정도다. 결국 액티브 ETF 쪽에서 가장 큰 순자산총액 증가율을 달성한 자산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인 셈이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타임폴리오만의 경쟁력은 늘 시장을 리서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패시브(Passive) ETF 출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패시브 운용은 우리 같은 소형사가 출시해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대형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보수 인하 경쟁에 뛰어 들기보다는 액티브 ETF로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드리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KODEX TDF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출시 30개월 만의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타깃데이터펀드(TDF) ETF 3종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월 말 상장 이후 약 30개월 만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은퇴 목표 시점(벤티지)에 따라 'KODEX TDF2050액티브' 'KODEX TDF2040액티브' 'KOD

EX TDF2030액티브' 등 3종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만 1361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는 전체 TDF(194개) 합산 유입액인 2조6000억원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KODEX TDF2050, 2040, 2030의 상장 이후 수익률은 각각 48.7%, 41.6%, 33.1%다.

KODEX TDF액티브는 전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글로벌지수 ETF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나스닥100 ETF를 추가로 자산에 편입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만기가 다양한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또한 최저 수준의 연 0.3% 총보수와 더불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지정가격 매매, 거래일 포함 3일이라는 짧은 환매 기간, 투자자산에 대한 실시간 공개 등 ETF만의 장점이 TDF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스마트연금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유입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 기자 wkh@



코스피가 전 거래일(2521.90)보다 6.12포인트(0.24%) 내린 2515.78에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23.52)보다 5.63포인트(0.78%) 하락한 717.89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60.5원)보다 4.5원 오른 1465.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 코스피 2500선 회복에도 불안요소 '여전'

금주美·中 경제지표 발표 등 변수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뚜렷한 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지표 발표와 핵심 기업실적 공개가 국내 증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3.86포인트(3.02%) 상승한 2515.78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2.13포인트(1.71%) 오른 717.8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502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은 각각 1조1163억원, 7705억원을 순매도했다.

황준호 상산증권 연구원은 "CES 2025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관련 테마가 주목받으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수출 호조 소식이 전해진 화장품 업종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수혜 기대를 받는 조선 업종도 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반등에도 전문가들은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CPI 발표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CPI는 파업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 조류독감으로 인한 식품품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세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화와 채권 금리의 안정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델타항공,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제 지표 발표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40~2570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